"강점을 키우세요…전문가가 되어 있을겁니다"

조선대에서 '열정樂서' 강연 삼성전자 이선우 부사장

지난 1일 저녁 조선대 해오름관에는 삼성그룹이 주관하는 '열정樂서' 강연이 열렸다. 삼성그룹이 대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열정樂서'는 전국 15개 도시에서 51차례 동안 17만 명이 참여했다.

'열정樂서'는 지난 2011년 10월 광주 광산문화회관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후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이 전남대를 찾아 청춘들을 만났다. 이날은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와 이동진 씨가 '걸어온 길과 가지 않은 길'이란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사전대본 없이 대담자들의 화려한 입담으로 즉흥적인 질문과 애드리브로 1부를 진행했다면 2부는 이선우(54) 삼성전자 부사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잔잔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로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12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안단테'로 비유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충청도 산골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43점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삼성에 입사한 후 2006년 삼성전자 메모리 영업3팀장 상무, 그리고 2012년 삼성전자 영상전략마케팅팀장으로 부사장의 위치에 올랐지만 어린 시절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를 바꾼 것은 '영어점수'였다. 100점 만점에 50점도 미치지 못해 크게 실망한 것도 잠시 자신이 영어점수 '전교 1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어선생님이 당시 중학교 3학년들이 배우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던 것이다.

"평소에 영어잡지에 있는 유머를 즐겨 봤어요. 처음에는 한글유머만 보다가 이후엔 영어유머, 그리고 점차 책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보는 게 즐거웠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했던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 거 같아요. 영어유머를 읽으며 좋은 성적을 받고 칭찬까지 받았죠. 이렇게 자신감을 얻으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부사장은 '대기만성'(大器晩成)을 강조하며 자신이 민첩한 순발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신중함과 진실함을 무기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업이란 커다란 관문 앞에 있는 청춘들을 향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고민을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후 거기에 몰입하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무엇이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가진 젊음의 특권이에요."

'취업 5대 스펙'을 넘어 8대 스펙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스펙'의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남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주문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남을 위한 배려'였다. 취업을 위해,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하는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장점과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 부사장은 취업이라는 좁은 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족함을 아쉬워하기보다 강점을 키우세요.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꾸준히 개발한다면 그 분야에 몰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분야에서 즐겁고 똑똑하게 몰두할 수 있다면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송원고 '2017 대학입시 설명회'

송원고등학교(교장 조명환)는 지난 2일 교내에서 중3 학생 및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웨이 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를 초빙, '2017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명엘리베이터, 복지관 장애인과 무등산 등반

대명엘리베이터(대표 최광일)는 최근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들과 무등산을 함께 등반하며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윤봉근 광주시의원 '출판 기념회'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봉근(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광주시의원은 지난 2일 DJ센터에서 '큰 생각 열린 리더십'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미술로 되찾은 소년들의 꿈

고용정보산업고 학생 치유 프로그램 작품전

광주 고용정보산업학교 박준민(17·가명)군은 미술을 통해 꿈을 찾았다. 박군은 고용정보산업학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사회에 대한 불신 등으로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얼굴과 꿈을 그려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박군 등 고용정보산업학교 학생 12명이 그린 작품들이 오는 7일까지 광주 갤러리자리아트에서 전시된다.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고용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자리다.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아름다운 동행에는 지난 1년간 학생들과 함께했던 광주여대 미술치료학과 류정미, 이난경, 오승진 교수가 함께했다. 학생들과 교수는 모두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은 큰 힘이 됐다. 아이들은 광주여대 교수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본인들의 자화상과 꿈 등을 장지에 채색했다.

사회에 나가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헌혈하는 모습을 그린 학생,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학생도 있다. 장지에 그린 자화상 속에서는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9년째 고용정보산업학교에서 미술 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류정미 교수는 "아이들이 미술 치료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목표를 다시 찾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작품은 전시 기간 일반인에 판매된다. 판매된 수익금은 고용정보산업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생활 정착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부분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실수를 저질렀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잠시나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문의 062-225-4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벤치에 작은 도서관 열었어요"

전남대 경영대 앞 광주 '책 읽는 벤치' 1호 연 탁아림씨

"책 읽는 벤치는 공유를 잇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지난 9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책 읽는 벤치 in 광주'를 시작한 탁아림(여·25)씨는 '책 읽는 벤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 10여 년 전 다 읽은 신문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루일방크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탁씨는 전남대 경영대 2호관 벤치에 '책 읽는 벤치' 1호를 열었다.

벤치의 조그만 책꽂이에는 알렉스 김의 사진집 '아이처럼 행복하라'를 꽂아두었다.

전남대에 처음 생긴 책 읽는 벤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타고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벤치를 운영하겠다는 '책벤 지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책 읽는 벤치'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날씨. 비가 내리면 책이 젖기 때문에 벤치 지기들은 빨래를 걷듯 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일부 벤치에서 책이 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책벤 지기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탁씨는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주가 돼 건물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라고 할 수 없다"며 "시민이 진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세열기자 hot@

전승현 전남개발公사장, 기자협회 감사패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이 지난 1일 광주전남 기자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 사장은 광주전남기협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개발공사의 경영혁신을 추진,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성여고 박도영양 '광주 청소년 대상'

광주 대성여고 박도영(2학년)양이 광주시 청소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3일 "청소년 대상 심사위원회의에서 박도영(대상)양을 비롯한 효행, 선행, 면학, 장애, 예체능, 국제화, 봉사 등 7개 부문별 각 1명씩 총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받게 된 박양은 병환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의공학자의 꿈을 갖게 됐으며, 전 교과에서 탁월한 학습능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양 외에 ▲효행부문 안현재(석산고 2) ▲선행부문 한민국(빛고을고 3) ▲면학부문 남명우(살레시오고 2) ▲장애부문 이정현(세광학교 고 3) ▲예·체능부문 이경규(돈보스코학교 고 2) ▲국제화부문 윤상권(국제고 1) ▲봉사부문 손은혜(대성여고 2) 등이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광주시장 표창패를 받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21일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오방상'

(사단법인)오방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오방상시상식이 최근 광주 YMCA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이사장 이용빈)가 수상했다.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는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오방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오방상은 생명살리기와 평화정착을 위해 일해 온 오방 최흥종 선생의 삶을 기리고자 2009년 제정된 상이다.

이용빈 이사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장시간 육체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욱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주계옥(광주 영락교회 담임목사)·손옥자씨 차남 민혁군 최영욱(최영욱 치과의원 원장)·윤미씨 장녀 지혜양=9일(토) 낮 12시 광주영락교회.

▲김병석(전 광주광역시청)·김양순씨 아들 형균군 김의남·이선례씨 딸 광미양=9일(토) 오후 2시 광주아이리스 웨딩홀 2층 헤라홀.

▲양회창(전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변영옥씨 장남 진원군 김철주(장흥종합병원 부원장)·양안숙씨 장녀 유경양=9일(토) 오후 5시 30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김성우·서춘숙씨 막내 태훈군 배치수(前 금호타이어)·박영숙씨 딸 수진(화순고등학교사)양=9일(토) 오전 11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타파니홀.

▲조민구(광덕고 교사)·이영자(곡성고 교사)씨 장남 영우(LG화학)군 임재구·손인숙씨 장녀 지원양=10일(일) 낮 12시 S-타워 컨벤션 메리골드홀.

▲김동욱·이숙경씨 장남 필성군 박중규(광주도시철도공사 양동역장)·정은하씨 장녀 송민양=24일(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광주 피로연=8일(금) 오후 6시30분 라페스타웨딩홀(구 메리아트웨딩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육) 월례회=5일(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재광 경주김씨종친회 월례회=5일(화) 오후 6시 맛집 한겨레(금남로 카토릭센터 뒤) 010-6455-6296.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자문회의 개최=6일(수) 오후 5시 종회 사무실 3층 062-228-3368.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8일(금) 오후 6시 우미추어탕(월산동) 062-369-1171.

향우회

▲재광나주다시향우회(회장 임동근) 11월 정기모임=9일(토) 오후 6시 하늘담채(상무지구 치평동) 010-3633-448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제1회 전국 동요경연대회 개최(주최 (사)한국음악협회 함평군지부)=9일(토) 오후 2시 함평군민회관 2층, 경연부문 및 경연곡은 독창, 중창중(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자격은 전국 초·중·고·일반 동요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 참가신청은 4일(월),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상 1팀·우수상 2팀 문의 010-2047-9237(윤선명 사무국장).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부음

▲이삼순씨 별세 김양수·민수·인수(포스코건설 부장)·애심·혜경씨 모친상=발인 5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강이씨 별세 신종엽(조선이공대 명예교수)·종구·종길·공순·유순·경자씨 모친상=발인 5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문승주씨 별세 현대·현길·명희씨 부친상=발인 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김옥현씨 별세 건태((주)유양기술)·현경씨 부친상 김정현(광양시청)씨 시부상 박정욱(검찰청)씨 빙부상=발인 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경림씨 별세 이병두·병섭·병덕·병석·성인씨 모친상=발인 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장춘 님(남/83세)
子/子婦 : 이호상/최지영, 영상
女/壻 :이선주/박춘영, 선영, 조항/민준식, 영화/안광운
未亡人 : 이영희
• 호 실 : 201호 • 발 인 : 11월 4일
• 장 지 : 효천 천주교 묘지 •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오선자 님(여/79세)
子/子婦 : 기진목/양준희
女/壻 : 기현미/서재곤
• 호 실 : 402호 • 발 인 : 11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유방자 님(여/73세)
子/子婦 : 채경선/황정희, 경복/백선미
女 : 채일란
• 호 실 : 101호 • 발 인 : 11월 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안창인 님(남/84세)
子/子婦 : 안현석/김춘희, 효석/강순자
女/壻 : 안효심/최강일, 안심/김국현
• 호 실 : 102호 • 발 인 : 11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